

B-5. 즉시 임프란트 식립시 연조직 1차 의도 폐쇄에 대한 증례 보고

박현규*, 박진우, 서조영, 이재복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발치후 임프란트의 식립은 일반적으로 발치 즉시 식립하는 immediate implant, 연조직 치유 후에 식립하는 delayed implant, 골 개조 및 재생 후에 식립하는 late implant로 분류된다.

즉시 임프란트의 장점은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발치후 골흡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즉시 임프란트 식립은 치조골의 해부학적 형태를 보존해주며 신선한 발치와에 임프란트를 식립함으로써 치조골정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완벽한 골재생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형성해주기 위해서는 연조직의 1차 의도 폐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즉시 임프란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조직의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즉시 임프란트에서 연조직 1차 의도 폐쇄를 위해서 releasing incision (Bowers & Donahue(1988)), rotated buccal flap(Becker & Becker(1990)), connective tissue graft(Edel A.(1995)), socket seal technique(Landsberg(1997)), palatal rotated flap(Nemcovsky et al(1999)), palatal advanced flap(goldstein et al(2002))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었다. 이 가운데 즉시 임프란트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releasing incision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간단하지만 연조직의 변형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connective tissue graft를 이용한 방법은 연조직 형태가 보존되므로 심미성이 유지하면서 각화 치은을 증가 시킬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연조직이 괴사되면 하부에 막이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증례발표에서는 즉시 임프란트 시행시 이용가능한 연조직 1차 의도 폐쇄 방법 가운데 releasing incision과 connective tissue graft를 이용한 증례의 단기간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재료

상악 전치부와 소구치부위에 즉시 임프란트 식립후 releasing incision 또는 connective tissue graft를 시행하여 연조직 1차 의도 폐쇄을 획득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즉시 임프란트시 releasing incision 또는 connective tissue graft를 이용한 연조직 1차 의도 폐쇄 방법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악 전치부와 같은 심미성이 중요시되는 부위에서는 즉시 임프란트시 releasing incision을 이용하면 치은점막 경계부의 위치 변화로 비심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connective tissue graft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두께와 크기의 조직을 채취하여야 이식조직의 괴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